

바비·스위프트·비욘세 ... 거센 '여풍'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여풍이 거세다.

뉴스위크는 5일 올해 여성들이 비욘세, 스위트, 바비에 열광하며 전에 없던 여성 엔터테인먼트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프트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공연을 펼치면서 엄청난 경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스위트가 미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경제 판도가 바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 유럽과 북미에서 월드투어 '르네상스'를 펼치고 있는 비욘세도 구름 팬을 몰고 다니면서 상당한 경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비욘세의 투어 출발지였던



▲ 비욘세 월드투어 '르네상스' 스웨덴 공연 모습. 사진=instagram(비욘세)

스웨덴은 지난 5월 물가 급등을 겪었다면서 그 원인으로 비욘세를 지목하기도 했다. 비욘세를 보러 세계 각국 팬이 스톡홀름 등에 몰리는 바람에 숙박비와 음식값 등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63년 동안 사랑받아온 바비 인형을 주제로 한 영화 '바비'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전세계 총매출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비가 올해 흥행 1위 자리를 꿰찰 것으로 예상한다.

시나리오 작가 줄리 부시는 여성 관객이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디즈니+, 가격 인상 ... 비번 단속도

월드디즈니가 구독자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의 가격을 인상하고, 비밀번호 공유 단속에도 나선다.

9일 CNN비즈니스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월드디즈니는 오는 10월12일부터 광고 없는 디즈니플러스의 구독료를 기존 요금에서 3달러 추가한 월 13.99달러로 인상한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12월에도 가격을 월 7.99달러에서 월 10.99달러로 올린 바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자회사 훌루의 광고 없는 서비스 가격도 10월부터 3달러 오른 17.99달러가 된다. 단 광고 시청을 해야하는 디즈니플러스와 훌루의 저렴한 요금제는 월 7.99달러가 유지된다. 경쟁사인 넷플릭스의 경우 월



▲ 디즈니플러스 홍보 이미지, 사진=디즈니플러스

15.49달러, 워너브러더스의 디스커버리 맥스는 15.99달러다. CNBC는 디즈니플러스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 디즈니플러스가 넷플릭스 등과 경쟁할 수 있다고 믿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디즈니플러스의 글로벌 구독자 수는 1억4,610만명으로, 지난 분기 대비 7.4% 감소했다. 인도 내 디즈니플러스 핫스타(Disney+ Hotstar)가 크리켓 리그 중계권을 잃은 뒤 구독자 수가 24%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CNBC는 설명했다.

앞서 비밀번호 공유 단속에 나선 넷플릭스의 경우 미국에서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분기 동안 590만 명의 가입자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도현 "암 투병 ...이틀 전 완치 판정"



▲ 윤도현이 공개한 방사선치료 첫 날의 모습. 사진=instagram(윤도현)

가수 윤도현이 3년 동안 암과 싸웠으며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도현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21년 무렵 아마 꽤 더운 여름 건강검진 후암이란 말을 듣게 됐다."면서 "정말 많이 놀랐다. 받아들이고 정신차리고 치료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좀 힘들게 치료했다."라며 그간 암 투병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윤도현은 암 투병 중인 소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팬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게 더 걱정됐었다.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틀 전 약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며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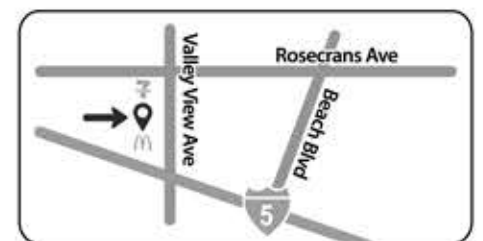
윤도현은 첫 방사선 치료 당시 찍었던 사진이라며 환자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치료 첫날 혹시 완치되면 사진 올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어 하나 찍어냈는데 올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OFFICE RENT 오피스 렌트 (라미라다,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



밸리뷰와 로즈크랜스 코너

- 989 sqft.
- 2룸 2층
- 교통 편리



<전화문의>

949.501.8555

Leah Ivy Chang Realtor